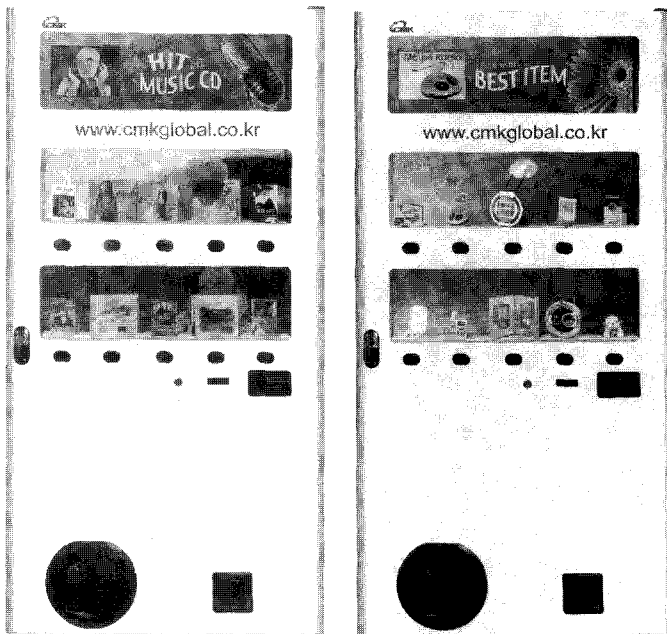


## CMK글로벌이 제시하는 멀티미디어자판기 사업전략

**축**구에 '멀티 플레이어(multi player)'란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축구경기에 있어 한 포지션으로 역할이 제한된 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을 맡겨도 이를 훌륭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칭하는 말이다. 일인다역을 요구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 이 같은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큰 우대를 받게 마련이다.

그런데 자판기 분야에도 이러한 멀티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자판기가 등장했다. CD자판기에서 각종 베스트신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물을 적용판매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자판기가 바로 그것.

멀티미디어자판기를 중심으로 신규업체 CMK글로벌이 펼치는 사업 전략을 소개한다.



아무리 '멀티 플레이어'라 할지라도 주된 포지션은 있게 마련이다. 먼저 주된 포지션을 훌륭히 소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역할도 소화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멀티 플레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

CMK글로벌의 멀티미디어자판기에 있어서 주된 기능과 시장 공략 포인트는 CD자판기로서의 활용이다. 애초 멀티미디어자판기는 CD자판기로서의 활용을 주된 목표로 해서 개발 상품화가 되었다.

“히트뮤직CD” 멀티미디어자판기는 소비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CD, 테이프를 누르면 제품의 특징, 수록곡명, 가수명, 제조원, 소비자판매가격 등이 영상 LCD를 통해 무료 제공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영상LCD는 지역광고까지 넣을 수 있어 부가적인 수입 창출 역시 가능하다.

CD 및 테이프 판매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 인기곡 위주로 칼럼을 구성해 판매효율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설치 로케이션의 고객 성향을 분석, 틈에이저들이 주된 고객인 로케이션은 발라드, 락, 랩, 합합댄스곡 위주로, 성인층들이 주된 로케이션인 경우는 트로트, 성인가요, 인기가요 위주의 칼럼 구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CD, 테이프뿐만 아니라 게임CD, DVD타이틀의 적용 판매까지 가능케 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판기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10000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3급중 지폐식별기가 부착되어 있고, 제품의 소비자가는 495만원(부가세포함)이다

'히트뮤직CD' 멀티미디어자판기는 국내 최초의 CD자판기라는 점이 이채롭다. 지금까지는 주로 CD레코딩자판기가 주로 선을 보였으나 시장에서 대부분 실패를 했다. 이런 점 때문에 CMK글로벌에서는 단순하게 CD나 테이프를 적용 판매하는 제품이 사업성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 이 제품은 초기에는 홍보부족으로 기대만큼의 시장 창출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수요가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의 관심도가 높아 수출 물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멀티미디어자판기는 각종 선물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베스트신상품자판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틈에이저들이 선호하는 팬시상품, 기획상품을 선정하여 10종류의 아이템을 선정 판매를 진행 할 수 있게 했으며, 소비자 취향, 지역특성,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공급을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다양한 팬시상품을 보완하여 좀더 자판기 운영의 수익성을 배가시키는데 많은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CMK글로벌의 또 다른 사업 모델은 졸음운전을 쫓을 수 있는 노슬리피(No Sleppy)자판기이다. 노슬리피는 졸

음이 몰려올 때 목뒤에 2~3회 스프레이 해주면 졸음을 쫓 달아나게 할 수 있다. FDA 안전성 승인을 받은 노슬리피는 판매가가 10,000원인 고가의 내용상품이다.

노슬리피자판기는 주로 휴게소, 주유소, 대형주차장, 자동차용품판매상 등을 타킷로케이션으로 삼아 본격적인 시장진개에 들어갔다. 제품의 소비자가는 150만원대이다.

CMK글로벌은 또한 마사지팩자판기 사업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제품은 찜질방, 미용실, 사우나 등을 타킷 로케이션을 삼고 있다.



지금까지 살피본바와 같이 CMK글로벌의 자판기 사업의 핵심은 내용상품의 다양화 측면이다. 획기적인 품목을 앞으로도 추가시켜 자판기는 그저 한정된 품목만을 판매한다는 인식을 타파하는데 선두주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